

기도의 계절입니다

“그래, 주중에는 뭐하고 지내세요?” 그분이 호기심 절반, 동정심 절반이 섞인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동네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주해 온 본인 데 제가 목사로서 환영인사차 방문했을 때 받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지요. 저는 그때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많은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꿈같은 쉬는 기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 생전에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하루나 반나절 여유 시간이 생겼나 하는 순간 예외 없이 항상 다른 일이 생기거나 마치 우리를 길 건너에서 감시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정에도 없던 분들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항상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끝이 없는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일, 관계, 결혼, 돈, 집안일, 모든 다른 일들이 그것입니다. (아, 물론 교회 일도 있지요)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세대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가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것들을 즐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왔습니다. 예의라는 건 개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요구되지도 않았습다. 24시간 일년 내내 개방되어 있는 보컨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유일한 의사인 셉입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일일이 만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때 사람들이 들었고, 그가 만져 주시자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니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 왔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쉴 새도 없이 계속 일만 하신 겁니다. 몰려온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와 휴식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먼저 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 하셨습니다. 바쁜 하루의 일정을 마치면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온 밤을 새워 기도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먼저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회사역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 속에 있는데 사순절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자신을 준비해 가는 기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간 동안에 더욱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해진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복잡하고 바빠질수록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매마른 단어를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계절입니다. 캐나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상황과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단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계절입니다. ■

